

## 간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사야 53:4-12, 빌레몬서 1:8-21

최정웅 목사님

### 요약

서론 :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1. 오네시모와 같은 현장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2. 오네시모를 살릴 내용(해답, 메시지)을 준비해야 한다.

- (1) 문제의 근본 원인 (운명의 원인)
- (2)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 (3)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됨
- (4) 영접한 자가 지속해야 할 전도자의 삶

결론 : 엘리트와 실패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뉘셨사오니, 온전히 말씀만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지하철을 댔는데, 중학생 하나가 다리를 짝 벌리고 앉아있었다. 이게 못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눈치를 쫓다. ‘야, 다른 사람들이 앉도록 해야지.’ 계속 눈치를 쫓다 전혀 자세를 안 고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일부러 그 옆자리에 앉아서 자기 다리를 확 벌리면서 이 아이의 다리가 모아지도록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야!’ 하면서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웃음) 아마 이 아이가 수술을 했던 모양이다. 쉽게 말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아이 사정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상대방은 어렵게 된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모두가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주일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율법주의의 눈으로 돌아가 버린다. 율법의 눈,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 실수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두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대상자로 볼 수 있으면 새로운 문을 볼 수 있는데 말이다. 연약한 사람을 놓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눈을 가지면 굉장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복음의 눈으로 보았다가 응답받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봄으로써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 말을, 내 행동거지를 복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한 마디로 말해, “복음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 1. 오네시모와 같은 현장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바울은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현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실과 사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애굽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숨어있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이다.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실이 숨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바울처럼 눈이 열려서 사실을 보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

(1)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연약했다.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리고 노예 된 신분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원망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육신의 힘은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도,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너그러이 봐 준 모양이다.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심에 빠지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게 된다. 은혜를 기회로 삼아 악을 행한 것이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에 불과하다. 소 돼지나 양과 같은 게 좋았다. 그 정도로 노예는 가치가 없었고, 억울함을 당했고, 신분이 처참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로마로 갔지만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 자기 주인 집에 드나들었던 바울을 재회하게 된다. 바울이 놀라서 오네시모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2) 여러분, 현장에는 이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 꼭 차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럴 때, 무너져버린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한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

게 보았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 사실적으로 오네시모를 봤다. 영적으로 본 것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에게 사로잡혀 죄만 짓고 살다가 저런 재앙과 저주를 계속 받아 가는구나.’ “네가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준 것이다.

① 사실은 오네시모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보였다.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자임을 보았다. 복음 아니면 이 상태를 치유할 수 없는데, 이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다. 이 자에게 복음을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지도 못했고 체험도 못 시켜준 것이다. 이것을 사각지대라고 한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영적 문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복음을 듣지 못해 사각지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오네시모다. 결국 재앙에 빠져 버렸다. 바울이 이것을 제대로 본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현장을, 이 세상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죄에 빠진 세상, 악령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살아가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사각지대가 내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된다.

② 빛이 비추지 않으면 결국 재앙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현장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 주셔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③ 그런데 또 알아야 할 것은, 사각지대가 되고 끝내 재앙지대로 변해 버린 현상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곳이 오히려 복음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다. 행8장에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재앙을 만났던 사마리아 땅에 전도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땅은 그런 황금어장이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은 죄악이 극심해서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도시였다. 사각지대 정도가 아니라 재앙지대였다. 그런데 요나가 적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서 안 갔다. ‘저것들은 빨리 망해야 한다.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거니까 아예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났다. 안 가면 결국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니깐,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갔다. 가서 좋은 마음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다. 원수의 나라니깐,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하고 전했다.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사흘 다녀야 다닐 수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 딱 복음을 말했다. 그런데 전 백성과 임금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재앙지대가 곧 황금어장이었다. 찌를 던지지만 하면 고기들이 벌벌벌 무는 황금어장이었던 것이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에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이요, 복음을 가장 사모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바울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3)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완전히 변화되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전에는 너와 내게 다 무익했다. 세상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지금은 가치있는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 심복이다.’ 심복이 뭐? 정말 믿을 만한 제자라는 말이다. 이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다. 본 대로 말하지 않는다. 정말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나쁜 인간이 전도제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제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제자로 세워졌다. 복음에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된 것이다. 이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아마 빌레몬이 그 말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 같다. 과연 오네시모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에베소에서 감옥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사각지대를 보고, 재앙지대를 보고, 그 속에서 황금어장을 보게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 보는 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옵소서. 황금어장도 재앙지대도 사각지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든 교우들이 일어나서,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안 되

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고 힘써 주어야 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주의 몸 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 2. 오네시모를 살릴 내용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네시모를 전도대상자로 보고 황금어장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오네시모를 살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오네시모를 살리는 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할 부분이다. 오네시모를 살릴 내용,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1) 재앙과 저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 자기의 문제와 상태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운명에서 온 것이다. 모든 불신자는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창3장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모두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롬3:23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다.” 그 결과 인간은 요8:44에 나오는 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렸다. 그게 사실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과거 문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미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10:38에, 마귀에게 눌린 채 시주팔자 속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묶여 있는, 자유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있으니 뭘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정신적, 육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2) 그런데 이 재앙과 저주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구주이시다. 구약 본문 12절에 보니까,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메시야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롬5:6-8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혹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담전1:15에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제사장이 되셨다.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려고 참 선지자가 되어 오셨다. 죄의 권세를 잡고 죄인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야, 그리스도라고 한다. 메시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메시야는 히브리어, 즉 구약의 언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의 언어, 헬라어이다. 그런데 구약에 나온 메시야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서 너의 창3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 약속이다. 선지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 이분이 메시야이시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참기름인가? 아니지 않겠는가? 휘발유인가? 큰일 날 것 아닌가? 피마자 기름일까? 무엇이였을까?’ 나는 고민하다가 나중에 알았다. 여기 있는 기름은 향수를 말한다. 향수를 뿜병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가 머리에 붓는다. 왕상19:16에, “너는 아벨멜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야,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으라.”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했다(삼상 16:13).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우리를 건지신 참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소망에 관한 이유,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준비해 두었다가, 말할 때는 운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벧전3:15).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다.

(3)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 “목사님, 저는 안 변해요. 절대로 성질이, 욕심이, 시기 분쟁 질투하는 마음이 안 변해요.” 그렇다면 기도하라. “주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주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의인인 줄 안다. 다른 사람 죄만 본다. 자기가 더 흉악한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요5:24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롬8:2에 말씀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살인마 김대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변했다. 이유 없이 죽었다. 만나는 사람을 그냥 죽였다. 그의 영적 문제가 그런

처참한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사형 당하는 순간까지 간수, 교도관들을 감동시키는 옥중의 성자가 되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다. “왜 우리가 저런 성자를 죽여야 하는가.” 그렇게 변화되었다. 도끼로 군인 가족 네 명을 살해한 고재봉은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받았다. 휴지로 쓰려고 찢다가 읽고 변화되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까지 육군교도소에 있었던 2천 명 중 18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16살 때 이미 전과자가 되었던 망나니 조지 폴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은 전도자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고후 5:17은 말씀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게으르신가? 예수 만나라. 뭐가 안 되는가? 주님을 만나라. 절대로 안 변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라. “주여, 내 마음에 오사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 뿐이시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느 날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셨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4)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임무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넣어놓고 그냥 버리면 아기는 죽지 않나. 도와주고 양육해 주어야 한다. 롬6:1-2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롬6:12-14에 보면,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롬12:1-2에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 군사, 경기자, 농부와 같은 전도자의 삶에 자신이 먼저 성공하고, 이것을 후대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 저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되게 할 부분이 필요요. 내가 책임질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충만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향이 오늘의 결론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디모데는 엘리트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건져내면 정말 가치있는, 필요한 사람이 된다. 디모데같이 훌륭한 엘리트를 잘 도와주면 기동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방향하는 엘리트를 살려내야 한다. 우리 후대를 엘리트로 키워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엘리트만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주님을 모델로 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으로 파고들어가서, 실패했던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전달하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라는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다. 교역자들은 먼 데까지 가지 마라.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 거기는 그 근처 교회들이 잘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믿어주고, 이곳을 살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다. 잊지 마라. 다락방을 해도, 지교회회를 해도, 이 지역에서, 자기 교구에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획이고 뜻이다.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 하면서 온 세상 다니지 말고, 이곳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요구다. 우리 장로님들도 눈을 떠라. 현장 보는 눈을 열라. 지교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안 되어도 괜찮다. 서서히 시작해 보라. “하나님, 나를 보고 지교회 하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허물만 남은 중직자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중직자가 아니라, 실존(實存), 실리(實利)가 있는 중직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라. 어느 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되어지는 역사를 체계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다. 실패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실패했던 영혼까지도 품고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을 전했다면 이것이 가슴에 남아, 한 주간 양약이 되어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종의 외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생명을 주게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를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